

## 2015 세계특허(IP)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

[특허법 및 민소법 개정안에 대하여]

일시 및 장소 : 2015. 4. 9. (목) 09:00 ~ 12:00, 국회 헌정기념관 | 후원 : 특허청, 국가지식재산위원회, 한국지식재산권변호사협회, 대한변리사회  
주최 : KAIST 미래전략대학원/미래전략연구소 | 주최 : 국회 세계특허(IP)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(공동대표 : 정갑용 국회의원, 원혜영 국회의원,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)



# 세계특허(IP)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 현장스케치

글로벌 특허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발의법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.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9일(목) 오전 9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‘특허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’을 주제로 ‘2015 세계 특허 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’을 개최했다.

이번 심포지엄에는 미래학자 짐 데이터(Jim Dator) 하와이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한상욱 한국지식재산권변호사협회 수석 부회장, 서민 前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장,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.

심포지엄은 특별강연과 특허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. 먼저 짐 데이터 하와이대학교 교수가 특별강연자로 나서 ‘지식 재산의 미래’를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. 열린 마음으로 지식재산의 미래를 함께 밝혀나가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.

이어 한상욱 한국지식재산권변호사협회 수석 부회장이 ‘특허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’에 대한 발제자로 나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서류 제출명령의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특허권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설명했다.

발표에 이어 서민 前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장과 8명의 토론자들이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.

이날 심포지엄에서는 ‘제3회 미래전략대상’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. ‘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 프로젝트’를 기획해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의 기초를 마련한 공로로 박연수 前 소방방재청장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. **SI**